

# 尹 만난 이재명 “민생 위한 정책” 당부... 막힌 정국 풀리나

##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

尹 “오랜만입니다”李 미소 뿐  
김진표 “5부 요인 한자리 처음  
정치권, 여야 떠나 민생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비록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회동’이나 ‘영수회담’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으나, 정치권이 일으키는 각종 정쟁으로 꽁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최근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일으키는 문구를 철거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故) 해병대 채상병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정실에서 김진표 의장 등 5부요인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시작하기 전 이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국 회 막판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야당이 밀어붙여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주재 사전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 측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만

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김 의장은 사전환담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멈추고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이렇게 대통령,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 둘째, 셋째로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

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상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좀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며 협치와 민생에 중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뻐... 국회 의견 경청할 것”

상임위원장단·여야 원내대표 간담회  
홍익표 “야당 협치 문제 아쉬움 커”  
윤재옥 “통합 위해 헌법적 가치 존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

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 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

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채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 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서연희 기자 syj@

## 김한길 “청년 1인가구 위해 정책적 관심·배려 필요”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  
1인 가구 700만 중 청년 30% 차지  
현실적·내실있는 정책 발굴 요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1인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반아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청년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청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자체가 벼슬이나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김건희 여사, ‘적십자 바자’서 에코백 기증

“소외된 이웃에 손길 전하고자 방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31일 오후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하고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주한외교대사부인들이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 판매 부스를 찾아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지난 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 수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 재활용품 부스에서 구입한 옷을 담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받고 있다. /뉴시스

금과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